LS증권 부동산 Weekly Data

2026-02-09

(2022.01.10=100.0)

건설·건자재 김세련 / sally.kim@ls-sec.co.kr

항목	일자 (마지막 update)	Data	Chg Net (YoY)	Performance (%)							
				1D	1W	2W	1M	3M	6M	1Y	연초이후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국 (2022.01.10=100.0)	2026-02-06	91.2	1.8	n/a	0.1	0.2	0.4	0.9	1.7	2.0	0.4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	2026-02-06	105.8	12.4	n/a	0.3	0.6	1.3	3.2	7.3	13.3	1.5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부산	2026-02-06	85.1	-1.5	n/a	0.0	0.1	0.1	0.4	0.1	-1.7	0.1
아파트 매매가격지수 5대광역시	2026-02-06	85.2	-1.1	n/a	0.0	0.1	0.1	0.3	0.0	-1.3	0.1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전국 (2022.01.10=100.0)	2026-02-06	92.2	1.8	n/a	0.1	0.2	0.4	1.1	1.6	2.0	0.4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서울	2026-02-06	96.4	4.3	n/a	0.1	0.3	0.5	1.7	3.1	4.7	0.7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부산	2026-02-06	90.6	2.3	n/a	0.1	0.2	0.5	1.6	2.1	2.6	0.6
아파트 전세가격지수 5대광역시	2026-02-06	88.4	1.2	n/a	0.1	0.2	0.4	1.1	1.4	1.4	0.4

주: KB부동산, LS증권 리서치센터

이번주 Com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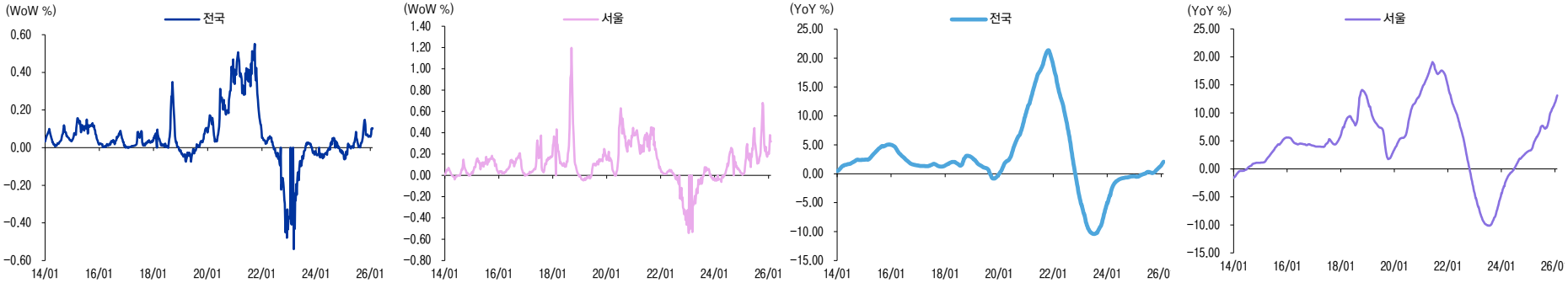
-**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**는 91.2로 +0.4% YTD, +0.1% WoW 증감함
-**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**는 105.8로 +1.5% YTD, +0.3% WoW 증감함
-**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**는 92.2로 +0.4% YTD, +0.1% WoW 증감함
-**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**는 96.4로 +0.7% YTD, +0.1% WoW 증감함
-**업종지수**는 **코스피 건설업**이 2.8% WoW, **코스닥 건설업**이 -3.5% WoW 증감함

- 기준금리 인하기 사실상 종료되며, 주담대 금리 7% 수준 향해가는 중
- 李대통령 SNS 7건 게시하며, 다주택자 및 부동산 투기를 향한 강경 메시지 전달
- 서울 아파트 가격, 52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주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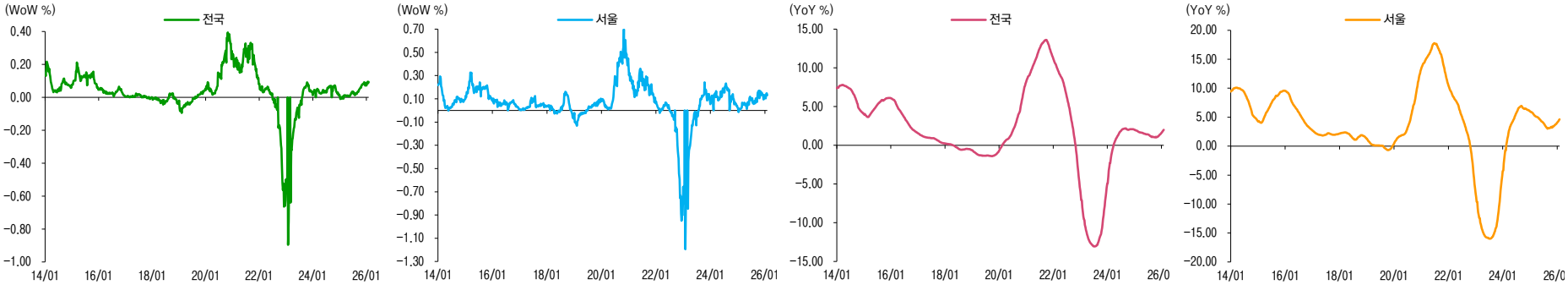
지난주 주요 News Flow

-이 대통령 "부동산 투기, 무슨 수 써서라도 잡는다…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" (26/2/3 뉴시스)
https://vo.la/1rUl2Ja
-정부 부동산 압박에…7% 향하는 주담대 금리 (26/2/5, 뉴시스)
https://vo.la/OHg5tbP
-구윤철 "다주택자 세제 보완, 내주 발표…서울 부동산 매물 늘어" (26/2/5, 매일경제)
https://vo.la/OWvSDk4
-부동산 PF 부실 압박에 칼 빼든 새마을 금고… 한 달 새 14개 사업장 정리 (26/2/6, 데일리안)
https://vo.la/KIAZvqM

아파트 매매 (WoW, YoY%)



아파트 전세 (WoW, YoY %)

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(작성자: 김세련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